

“예술원 개혁해 신인예술인 지원을”

이기호 소설가 靑 국민청원
예술원 제도 개정 필요성 제기
수당·임기 등 ‘상식’ 관점에서 주장
소설로도 부조리함 그려

매달 180만원 정액 지급, 평생 자격 유지, ‘대한민국 특수 예우 기관’...

바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예술원은 지난 1950년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회원으로 선출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부분에서 3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예술원은 현재 90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임기는 종신이다. 한해 지원되는 국가예산이 32억원에 이르고 사무국 직원 13명이 파견돼 있다. 더욱이 올해 예술원상(상금 1억 원)을 수상한 4명 가운데 1명이 현 회원 동생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심사 전 제척 사유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이기호 작가가 예술원 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 작가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예술원’ 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대’와 ‘공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에 앞서 그는 문예지 ‘악스트’(7·8월호)에 단편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도래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문학 분과를 중심으로)’을 발표하며 예술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작가 특유의 촌철살인에 빛을 발한다. 보고서 형식의 소설은 예술원 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이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내 소설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쑥스럽게 여기는 편인데 이 소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쓴 소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길게 적는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예술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접하면서였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예술가에게 지원되는 어떤 예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예술원은 증액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합리하



이기호 소설가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 홈페이지에서 캡처>

고 부조리한 예술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술원 회원이신 선생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분들의 문학을 펴내거나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다”며 “단지 예술원이라 ‘단지 예술원이라’는 기관과 관련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지적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예술원 관련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회원이 되면 매달 180만원씩 평생 지급되고 이 밖에 창작지원금도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 중 상당수는 정년퇴직할 교수들이다.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인데 “예술계 상위 1% 회원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정의에 어긋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예술원 회원들의 명예가 반드시 수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차제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호 소설가

회원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회원 선출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술적 업적이 탁월하다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술적 성취와 공헌보다는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회원 임기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는 연임제였던 것이 지난 2019년 11월 법 개정으로 ‘평생’으로 바뀌었다.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 방향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인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단 내 반응도 이기호 작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영 시인, 이순원 소설가를 비롯해 젊은 예술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김동하 소설가는 “물론 예술원 회원들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예술원 제도가 예술을 장려하는 취지라면 국가 예산은 어려운 젊은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민주·인권·평화 UCC 공모전’ 수상작 전시

일반부 대상 ‘나는 대면한다’ 등 누리집·유튜브 등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올해 ‘ACC 민주·인권·평화 UCC 공모전’ 수상작을 13일부터 ACC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미디어월 등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일반과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2편을 비롯 최우수상작 2편, 우수상 6편 등 모두 10편의 공모전 수상 작품이다.

일반부 대상작 ‘나는 대면한다.’(배유미 작)는 5·18민

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오늘의 미얀마, 오늘의 광주와 내일의 아시아와 대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을 표현했다.

청소년부 대상작 ‘1980년 파사로는 햇살이 비치는 어느 5월’(새별역사동아리 작)은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 민주항쟁의 현장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최우수상작 ‘영원’(BADIL 작), ‘할아버지 5·18



일반부 대상 배유미 작 ‘나는 대면한다.’

이야기’(ANNA 작)와 우수상 6편 등도 모두 민주·인권·평화의 의미가 투영된 수작이다.

작품은 ACC 유튜브 채널과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일부 작품은 ACC가 운영하는 미디어월에서 오후 1시~2시, 오후 5시~6시 등 두 차례 만날 수 있다. ACC는 이들 수상작들을 홍보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산강문화관 ‘영산강에서 놀자! 환경동화 프로젝트’

K-water 영산강보관리단과 ㈜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은 내달부터 ‘영산강에서 놀자! 환경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동화를 읽고 펼쳐지는 자연친화적 예술놀이로 자연 탐방 등 실내와 야외활동을 병행해 진행한다.

교육은 동화 속 내용을 우리 곁 영산강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각을 활용한 ‘영산강 구슬 만들기’는 몸짓에 이야기를 입혀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며 물길 드로잉 퍼포먼스와 영산강 줄길, 강물정초부 게임, 환경사랑 식물심기, 영산강에게

보내는 편지 등 감각과 감성을 더한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한다.

전 회차 참가자에게는 활동수료증을 수여하며 기념품과 간식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이며 9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17기 모집은 지난 10일 시작했으며 2기 모집은 9월 23일부터 영산강문화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yeongsangan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335-086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 김초엽

예스24 독자 온라인 투표

차세대 한국 SF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김초엽(사진)작가가 ‘2021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1위로 선정됐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2021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독자 온라인 투표 행사를 진행했다. 총 31만394명 독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김초엽 작가는 5만679표(10.9%)의 득표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채로운 아름다운 속에서 사려 깊은 세계관을



전개해 ‘SF의 우아한 계보’로 불리며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김 작가는 2017년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했다. 이어 2위는 4만

8375표(10.4%)를 받은 장유진 작가가 차지했으며, 천선란 작가가 3만9181표(8.4%)로 3위에 올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사 예술경험 워크숍’

18~19일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문화재단은 ‘2021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사대상 예술경험 워크숍’을 광주 봉선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광주 유·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강의식 교육이 아닌

놀이, 문학, 그림,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체험형 형태로 펼쳐진다. 유·초등학교 교사와 예술교육가가 함께 일상 속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그림책, 공예 등 현대 예술 창작 작업을 진행한다.

지역 교육예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행동 S#ARP 대표 정민기,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대표 신희흥, 마음놀이터 대표 김옥진이 함께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색으로 떠나는 이야기, 놀이로 떠나는 이야기, 선으로 떠나는 이야기, 종이 한 장으로 떠나는 이야기 등이다.

한편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사대상 워크숍은 2018년부터 시작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2020년도 ‘예술가의 가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수비는 전액 지원되며, 종료 후 참여율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576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